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기념관 전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 촬영한 초상사진작가 박상훈씨

광주시 새마을회 '녹색새마을운동 선포식'

“민주 투사라기보다 아버지 같은 인자함 흘렸다”

“서거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인이나 민주투사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마련인데 카메라 렌즈 앞에서 그 분은 친아버지와 같은 인자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001년 1월4일 청와대에서 김 전 대통령의 초상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 박상훈(57)씨는 당시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턱을 끈 후 생각에 잠긴 김 전 대통령의 모습을 이렇게 술회했다.

노벨 수상자로 노르웨이 오슬로 기념관에 영구히 걸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청와대에 갔던 박씨는 사진 촬영 당시 김 전 대통령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촬영 전날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영수회담이 걸렸던 직후라 기분이 좋지 않았던 상태였어요. 청와대 자체 분위기도 무거웠고, 청와대 내 회의실에서 30분간 촬영시간이 주어졌는데 ‘사진 찍는데 왜 이리 오래 걸리는가’라고 묻기도 하셨죠.”

박씨는 기분이 좋지 않은 김 전 대통령의 긴장을 풀기 위해 대화를 하며



사진작가 박상훈씨가 지난 2001년 청와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상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1997년 대선 당시 김 전 대통령의 유세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국 PD가 박씨 남동생의 부인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이 남대문에서 시장 상인의 역할로 나왔던 프로그램이 시민

들로부터 반응이 좋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던 것. 자연스런 대화가 오가며 분위기는 밝게 만들어졌고 결국 촬영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사실 김 전 대통령을 전에도 두번 정도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1980년대에 해금되신 후 유세하시는 장면을 부탁받아 촬영했거든요. 하지만 이



노르웨이 오슬로 노벨평화상 기념관에 영구 전시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초상사진. <사진작가 박상훈 제공>

렇게 독대해서 쓴 적은 처음이라 긴장했습니다.” 청와대에서의 촬영은 박씨의 작품을 눈여겨 본 이회창 여사가 보좌진을 통해 먼저 연락해와 성사됐다. 박씨의 포트폴리오를 이 여사가 직접 본 후 결정했다는 것이다. 노벨평화상 기념관에 영구적으로

걸려야 할 사진인데 기존의 사진은 이회창 여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새로 찍기를 청해 박씨에게 연락이 닿았다.

이렇게 만난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은 자애와 예리함이 공존하는 눈빛과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가의 면모까지 담아낼 수 있었다. 활짝 웃는 사진보다 자연스럽고 인자해 보이는 웃음이 대통령에게 잘 어울렸다.

사진촬영을 마친 후 작품에 만족한 김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이회창 여사와 무궁화대훈장 수상을 기념하는 부부사진을 맡아달라며 다시 박씨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이후 박씨는 입술이 부르튼 노무현 전 대통령과 환하게 웃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포스터를 촬영하는 등 역대 대통령과 인연을 계속 만들어 갔다.

박씨는 “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퇴원할 줄 알았는데 서거해서 너무 안타깝다”며 “사진 속 모습으로 영원히 우리들 기억에 남아 계시길”이라고 말했다.

/광명기자 kps@kwangju.co.kr



광주시 새마을회(회장 김동기)는 지난 19일 광주 시청 대강당에서 이재창 중앙회장을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해요! 그린광주 녹색새마을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칠순 잔치 대신 ‘사랑의 쌀’ 80포 기탁



최근 칠순을 맞은 장성군 차완섭(장성읍)씨는 19일 잔치 대신 전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불우이웃들에게 쌀 20kg 80포를 전달했다. <장성군 제공>

광주경찰청 권력형 비리 근절 연석회의



광주경찰청(청장 김남성)은 20일 오후 청사 내 무등홀에서 공무원 비리, 각종 이권 게임 등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과, 정보과, 보안과, 생활안전과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광주경찰청 제공>

고산문학 대상 최동호·이근배 시인



해남군이 주최하고 고산문학추진 운영위원회(위원장 오세영)와 계간 열린시학이 주관하는 제9회 고산문학 대상 수상자로 시 부문에 최동호 시인, 시조 부문에 이근배 시인이 20일 각각 선정됐다.

수상작은 최씨의 시집 ‘불꽃 비단벌레’(서정시학)와 이씨의 시선집 ‘사랑 앞에서는 물도 운다’(시월)다. 상금은 각 1천만 원이며, 시상식은 오는 10월17일 고산문학추진 행사와 함께 열린다. 고산문학 대상은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1587~1671)의 문학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2001년 제정됐다. /해남=박희경기자 dia@

김대익 한국프라임제약 사장 보건산업대상 수상



김대익 한국프라임제약 대표이사(사)가 2009년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중견벤처기업부분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대기업부문은 아주대학교 병원에 돌아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리즈 칼튼호텔에서 열렸다. 김 대표는 지난 2000년 한국프라임제약을 설립

한 뒤, 2003년 매출 100억원에 이어 2008년 351억원을 기록했다. 한국프라임제약은 현재 160여 품목의 전문 의약품 생산,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오는 2011년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채희경기자 chae@kwangju.co.kr

“고향의 봄 등 한국 대표적 노래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었으면...”

베트남 초등학교 피아노 3천대 기증 부영 이준근 회장

“‘졸업식 노래’나 ‘고향의 봄’ 같은 한국의 대표적 노래를 같은 정서를 지닌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글로벌화하는 것이 꿈입니다.”

베트남 전국 초등학교에 한국의 ‘졸업식 노래’ 등이 수록된 디지털 피아노 3천대를 기증한 ㈜부영의 이준근 회장은 20일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런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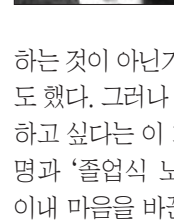
이 회장이 ‘졸업식 노래’, ‘고향의 봄’, ‘아리랑’, ‘애국가’ 등 한국인이자면 귀에 익은 노래가 저장된 디지털 피아노를 베트남에 기증키로 한 것은 우연한 계기에서 비롯됐다.

“베트남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등학교 졸업식 대화가 오고 갔고, 졸업식에서는 장엄한 국가밖에 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그는 한국의 애창곡 가운데 하나가 ‘졸업식 노래’라는 사실을 강조한 뒤, 문화와 정서가 같은 베트남에 이것을 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회장의 이런 제의에 베트남측 인사 대



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인사들은 이 회장이 혹시 ‘불순한’ 의도로 이를 시도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서 기증하고 싶다는 이 회장의 설득력 있는 설명과 ‘졸업식 노래’를 들었던 그들은 이내 마음을 바꾼 뒤,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밝혔다.



“베트남에는 6개로 된 성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편곡이 불가피하지만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회장은 베트남 지인의 권유로 베트남작곡가협회에 변안작업 등을 맡긴 상태다. 조만간 이 작업이 끝나게되면 한국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전국 초등학교에 전달할 디지털 피아노에 관련 곡들을 수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남뉴스

광주입석로타리 “저소득층 집 수리해 드려요”

민주입당 정치 행보 본격화

사회단체인 광주입석로타리클럽(회장 김영석)이 매달 한 차례씩 저소득층 가정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펴기로 했다. ㈜청구종합건설(회장 박정현)과 ㈜현대건설, ㈜나나 등에서 도배지와 장판, 페인트 등을 후원한다.



광주입석로타리클럽은 20일 광주 시 남구 원산4동에 거주하는 A(여)씨의 집을 수리했다. 광주 남구청이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중인 ‘효사랑 나눔 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집수리 봉사에는 입석로타리클럽 회원과 청구건설 직원 등 2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김영석 입석로타리클럽 회장은 “매달 1곳 이상씩 저소득층 가정 집수리 봉사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현호기자 khh@

김동화 전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이 최근 민주당 입당과 함께 2010 나주시장선거 민주당 경선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섰다. 김 전 국장은 20일 “오랜 공직생활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인적자산을 바탕으로 나주에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을 생각”이라며 나주시장 출마 뜻을 밝혔다. /나주=최승철기자 srchoi@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광주입석로타리 “저소득층 집 수리해 드려요”
광주입석로타리클럽(회장 김영석)이 매달 한 차례씩 저소득층 가정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펴기로 했다.
광주입석로타리클럽은 20일 광주 시 남구 원산4동에 거주하는 A(여)씨의 집을 수리했다.

두번 슬로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선진국형 장애인복지서비스 프리드 장애인종합상담소 1566-4499